

## 노인의 경로당 이용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성별격차 연구

### Study about the Use and Satisfaction of Elderly Facilitie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김학실(Kim, Hak Sil)\*

#### ABSTRACT

This study attributes the use and satisfaction of elderly facilitie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We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in elderly facilities.

We research 901elders in Chung cheong buk-do elderly facilities. The way we researched i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First, female elders spent more times and were involved in various programs than male elders. Especially, female elders are satisfied about the facilities and programs. However, male elders were less satisfied about programs and facilities. In addition, their attendance was low because they were not satisfied about programs and their hobbies.

Second, In this research it shows that female elders were more satisfied in usage of elderly facilities than male elders. The most effective primary factor was educational background.

Thus, there are gaps between female elders and male elders about satisfactions of usage in elderly facilities. To solve the gaps, it is needed to improve programs for male elders.

key words : satisfaction of elderly facilities(경로당 만족도), gender differences(성별차이), character of usage of elderly facilities(경로당 이용특성)

##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속도 또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미 1971년 62.3세였던 평균수명이 2005년 77.9세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10.3%로 1999년보다 3.4% 증가하였다. 과학기술과 의료수준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져, 노인 인구 중 고학력자의 비율 증가, 사회적 관계 지속에 대한 욕구,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욕구 또한 증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 행정학 박사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퇴직 후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며, 지역사회 지원활동과 동료들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있어서도 다수의 노인을 위한 취미 여가 활동보다는 사회교육이나 정보활동 등에 치우쳐 있어 우리나라 노인들 중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마을회관의 경우 접근성에 매우 유리하기는 하나 주로 농촌에 분포되어 있고, 주로 회의나 이벤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활동 시설로 보기 어렵다. 노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고 보다 접근이 용이한 노인이용시설이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일선 기관이 바로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은 남녀노소의 삶의 경험과 욕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 프로그램은 남녀노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운영되기 보다는 취미나 여가에 치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시 여성과 남성의 면밀한 욕구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인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경로당이 여전히 노인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활기찬 노인의 삶 유지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2000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다 활기찬 노인참여와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로당 참여가 남성의 경로당 참여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으나, 여성과 남성의 욕구에 기인한 성별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오랫동안 삶의 경험과 조건이 다르므로 인해 원하는 프로그램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을 통해 나타나는 남녀노인의 차이 현상을 성(gender)이론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하고 남녀차이의 문제를 부각하고자 한다. 성별비교적 접근은 성별에 따른 관련요인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구분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작용하는 고유한 요인들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이현기, 2008: 167), 노인경로당 이용 만족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여성과 남성의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여성과 남성이 이용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만족도에 관해 살펴본 후, 이러한 요인이 남녀 노인의 경로당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시 성별에 따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의 동향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원으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 및 정보기능센터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고, 둘째,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확대하며, 셋째,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로당과 관련된 중요 사안별로 경로당의 기능, 여가활동프로그램, 경로당 이용의 만족도,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 경로당활성화 사업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임춘식 외 4인, 2006: 318), 경로당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서 경로당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경로당의 수와 분포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인원에 비해 실제 이용인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선우 덕, 1999; 강홍구, 2000; 박정호·정은하, 2005: 177).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 장애요인으로써 박태룡(1994)은 경로당의 기본시설 및 여가설비의 미비, 운영재정의 미흡, 프로그램의 부재, 전달체계 및 전문 인력의 부재,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자원활용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장기, 화투, 텔레비전 시청 등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외, 1992; 박태룡, 1994; 박재간, 1997; 선우 덕, 1999; 강홍구, 2000).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김지영, 1997; 박미영, 1999; 류호열, 2001; 최현순, 2002)를 보면 노인의 경로당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용횟수, 이용이유, 작업장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한 연구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 방안으로 지역특성과 이용노인의 욕

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실시, 경로당 기능의 확대와 운영의 전문성, 경로당 운영책임자의 교육과 운영주체와의 협력, 경로당 후원회와 자치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유대증진, 소득보충사업의 실시와 취업·부업의 알선, 전문 인력과 재원의 확보 및 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범수, 2001; 임춘식, 2002).

경로당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만족도와 강좌나 각종활동 등의 여가 프로그램 만족도를 연구하고 있다(김경란, 2000; 박을남, 2001; 최희순, 2002; 오현숙, 2003; 이인수, 2003; 최승근, 2004). 연구결과 시설과 설비,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가족의 지원 등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 건강프로그램, 취미교실,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지원,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이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근홍, 1999; 오현숙, 2003; 이재모, 2004). 또한 자원봉사활동 유무, 지역사회지원과 관심, 가족의 지원을 포함한 경로당 이용만족도 조사(이재모, 2004)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이용실태와 만족도, 참여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이 수행해 온 중심적인 역할이 사회의 분화에 따른 개인화와 인간의 소외현상을 감안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때 노인간 다양한 욕구 이해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프로그램욕구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 노인 참여와 성별 차이에 따른 연구

우리나라에서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여성과 남성이 삶의 경험과 생애에 대한 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으로써 성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노인연구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여성 노인의 경우 고령인구비율이 매우 높으며, 연령이 높아갈수록 사회참여율도 높아져 경로당 참여인구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다는 점, 경제적 욕구나 사회적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맺고 있다는 점등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밝히는 성이론(gender theory)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노인 여가활동의 성별차이를 말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성 역할이론(gender role theory)이다. 이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은 남녀에 따라서 차별화 되어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은 사회, 가정 및 직장에서의 남녀의 역할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여가활동이 학습되기 때문에 남자는 실외 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자주하게 되지만 여자 노인은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을 더 자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서양문

현이나 우리나라에서 무의식적으로 여가활동의 성별차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험적으로 일부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윤정·정순희, 2003: 4; 이현기, 2008: 168 재인용). 따라서 노인 여가활동의 성별차이는 기본적으로 성별역할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되며 성별에 적절한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여가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실천적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현기, 2008: 186).

한편 결혼 지위와 관련하여 결혼 상태는 여가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결혼 상태인 사람보다 여가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반대경우의 사람보다 더 참여율이 높지만(Smith, 1994), 여가활동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Strain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 지속된 여가활동의 빈도와 결혼 상태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관련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건강측정의 방법이 있으나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건강측정방법과 상관성이 높으며 동시에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되어 있다(Fisher·Rapkin and Rappaport, 1991).

종교참여는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정순희·최혜경(2006)은 한국 노인과 캐나다 노인의 여가활동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서 여가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노인에게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노인이 종교활동 뿐 아니라 다른 여가활동에서도 모두 참여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희범·한혜원, 2000).

그러나 여성과 남성노인의 차이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선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으며 배우자가 없는 기혼노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되었다. 남성노인의 경우 생활주기 전반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 연관하여 비슷한 동년배와 집밖에서의 여가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노인은 감정적 역할에 보다 익숙하여 교류를 중시하여 친척이나 친구들의 만남 또는 모임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문영빈, 2008). 또한 남성노인은 친구와의 모임이나 운동, 등산, 낚시 또는 바둑, 장기, 화투 등 가정밖에서의 여가활동이 많은 편인데, 여성노인의 경우는 가족중심적 여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종교생활을 통한 정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친목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익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에는 남성노인이 많이 참여하는 반면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및 학습단체

는 여성노인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경험으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 뚜렷한 성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남녀노인의 욕구와 사회참여는 차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남녀노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남녀노인간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런 요인들이 실제 경로당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남녀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II. 연구설계

#### 1. 설문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성별차이에 따른 노인의 경로당 이용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성별격차에 관한 연구로 4개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의 경로당 이용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경로당 이용만족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는 것이고, 셋째, 경로당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넷째, 경로당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으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해당되는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충청북도 거주 노인은 2008년 기준 총 192,542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 중 1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중인 경로당은 3,781개소(2008년 12월 기준)이며, 경로당 회원 수는 142,74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중 약 75%에 해당하고 있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경로당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여성이 59.1%, 남성이 40.9%로써 인구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lt;표 1&gt; 충청북도 노인인구 및 경로당 회원 현황

(단위 : 명)

지 역	65세 노인인구			경로당 회원수		
	남	여	계	남	여	계
계	77,014	115,528	192,542	58,414	84,333	142,747
청주시	18,712	29,625	48,337	7,292	11,435	18,727
충주시	11,437	16,826	28,263	8,722	10,524	19,246
제천시	7,879	11,172	19,051	5,412	7,001	12,413
청원군	8,360	12,735	21,095	6,643	14,279	20,922
보은군	3,736	5,555	9,291	3,320	5,041	8,361
옥천군	4,489	6,725	11,214	4,105	4,979	9,084
영동군	4,693	7,124	11,817	5,287	7,225	12,512
증평군	1,601	2,440	4,041	1,544	2,149	3,693
진천군	3,652	5,499	9,151	3,862	4,809	8,671
괴산군	4,043	5,924	9,967	4,023	5,861	9,884
음성군	5,627	7,963	13,590	5,595	7,535	13,130
단양군	2,785	3,940	6,725	2,609	3,495	6,104

\* 자료 : 대한노인회 충북연합 내부 자료(2008.12.31 기준)

이와 같은 통계에 근거하여 설문대상자는 12개 시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 한정하였으며, 시군별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12개 시군에 배치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와 시군 담당자를 통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후에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 응답율을 살펴보면 총 3,781개의 경로당 중 약 4%에 해당되는 150개의 경로당에 경로당 이용인원을 사전조사한 후 할당하여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901개로 회수율은 90.1%이고 회수된 설문지를 모두 통계 자료로 활용하였다.

&lt;표 2&gt; 설문지 배포 및 표집

	설문회수	설문배포	비율	경로당수
계	901부	1,000부	90.1	150개소
청 주 시	114	130부	87.7	18개소
충 주 시	119	130부	91.5	20개소
제 천 시	87	87부	100	11개소
청 원 군	101	120부	84.2	21개소
보 은 군	70	70부	100	10개소
영 동 군	60	60부	100	11개소
진 천 군	91	80부	113.8	12개소
옥 천 군	40	40부	100	4개소
괴 산 군	55	55부	100	10개소
증 평 군	27	80부	33.8	13개소
음 성 군	100	100부	100	10개소
단 양 군	37	40부	92.8	6개소

## 2. 설문 및 연구내용

<표 3>은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된 관련요인의 정의와 코딩방법이다. 독립 변수는 인적 특성과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로당 참여도로 참여일 수와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종교, 동거가족, 월평균 수입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①보건의료관련 프로그램(건강관리 및 진단, 한방의료, 수지침, 아·미용, 발맞사지 등), ②건강관련프로그램(건강체조, 요가, 기체조, 게이트볼, 태극권) ③레크레이션 프로그램(웃음치료, 가요, 민요, 노래교실, 사물놀이) ④교양교육 프로그램(전통예절, 한글·컴퓨터 교육, 노인리더강좌 등) ⑤취미관련 프로그램(원예, 서예, 자수, 공예, 미술, 음악, 악기 등) ⑥봉사활동(자연보호, 교통안전봉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한문예절 교육, 청소년 선도 등) ⑦노인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공동작업장, 분리수거)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시설만족도는 ①주방시설 및 기구 ②화장실 시설 ③프로그램 진행실 면적 ④냉난방 시설 ⑤도배, 장판 ⑥시설의 안전성 ⑦운동시설 ⑧남성, 여성이 분리된 휴식시설 ⑨의료시설(경로당 내 혈압체크기 등) 9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응답의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4점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일주일에 며칠 정도를 이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기 위해 우선 인구학적 특성변수가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변수와 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시설만족도가 최종 종속변수(정기적 참여와 참여일 수)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노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lt;표 3&gt; 관련요인의 정의와 코딩방법

구분	범주	변수명	조작화
독립변수	인적 특성	성별	여성 1, 남성 0
		연령	70대이하 1, 80대이하 2, 90대이상 3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이상
		배우자 유무	유 1, 무 0
		종교	유 1, 무 0
		동거가족	유 1, 무 0
		건강상태	좋은 편 1, 나쁜 편 0
		월평균수입	30만원 미만 1, 30-50만원 미만 2, 50만원이상 3
	만족도	시설만족	불만족 1, 만족 0
		프로그램만족	불만족 1, 만족 0
종속변수	참여도	정기적 참여	정기적 참여 1, 비 참여 0
		이용일수	일주일에 3일 이상 1, 2일 이하 0

### 3. 연구방법

노인의 경로당 참여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였다. 분석 기법은 자료수정 방법을 거쳐 빈도 분석,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인적특성, 주거 상태 등을 파악하고 노인의 경로당 이용만족도 수준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성 있는 문항들끼리 교차분석을 재실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피어슨 카이 제곱과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lt;표 4&gt;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설문조사: 2009년 7월 27일 ~ 8월 21일
조사대상	도내 경로당 이용자(12개 시·군: 경로당 150개소)
조사방법	프로그램 관리자 면접 조사 혹은 설문지에 의한 조사
통계 방법	Excel 2003, SPSSWIN 통계 처리

## IV. 연구결과와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징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인구비율은 6:4정도로 여성의 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가운데 응답비율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75.2세, 남성은 74.5세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연령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80대 이상의 노인비율이 60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80대보다 60대 연령의 노인이 더 많은 응답비율을 보여, 경로당 이용에 있어 여성의 고연령화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균수입은 여성은 38만 3541원, 남성은 52만 2629원으로 남성이 14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한다는 비율이 29.9%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40만원 이상에서 70만원의 경우는 35.4%, 70만원 이상은 22.5%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종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건강상태는 여성보다 남성이 나쁘다는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비율이 남성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고연령 여성의 경우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연령대	60대	109(18.0)	45(18.4)	154(18.1)
	70대	346(57.2)	162(66.1)	508(59.8)
	80대이상	150(24.8)	38(15.5)	188(22.1)
전체		605(100.0)	245(100.0)	850(100.0)
종교유무	있다	412(67.3)	157(62.3)	569(65.9)
	없다	200(32.7)	95(37.7)	295(34.1)
	전체	612(100.0)	252(100.0)	864(100.0)
수입대	20만원미만	94(29.9)	21(11.8)	115(23.4)
	20만원~40만원미만	93(29.6)	54(30.3)	147(29.9)
	40만원~70만원미만	94(29.9)	63(35.4)	157(31.9)
	70만원이상	33(10.5)	40(22.5)	73(14.8)
	전체	314(100.0)	178(100.0)	492(100.0)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동거가족	없음	375(61.2)	224(87.5)	599(68.9)
	있음	238(38.8)	32(12.5)	270(31.1)
전체		613(100.0)	256(100.0)	869(100.0)
건강상태	나쁜편	251(43.4)	148(59.4)	399(48.2)
	좋은편	328(56.6)	101(40.6)	429(51.8)
전체		579(100.0)	249(100.0)	828(100.0)
학력	무학	231(39.1)	19(7.3)	250(29.3)
	초졸	297(50.3)	111(42.5)	408(47.9)
	중졸	49(8.3)	72(27.6)	121(14.2)
	고졸	10(1.7)	49(18.8)	59(6.9)
	전문대학이상	4(0.7)	10(3.8)	14(1.6)
전체		591(100.0)	261(100.0)	852(100.0)
배우자	있다	254(42.5)	202(78.3)	456(53.3)
	없다	344(57.5)	56(21.7)	400(46.7)
전체		598(100.0)	258(100.0)	856(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남녀 노인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고령의 여성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도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력은 초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70대 정도 연령이 다수 이용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가 87.5%에 해당하였고,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빈곤화가 문제라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특성

성별에 따른 경로당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경로당 이용횟수는 매일 이용(49.2%)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3~4일정도 이용(31.6%)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로당 이용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하루 종일 이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시간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여성노인의 경우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53.3%),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21.1%),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20.6%)인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8.5%),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7.8%), 건강을 위하여(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6&gt;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특성

(단위 : 명, %)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이용횟수	매일	303(49.2)	72(27.4)	375(42.7)
	5~6일 정도	124(20.1)	45(17.1)	169(19.2)
	3~4일 정도	122(19.8)	83(31.6)	205(23.3)
	1~2일 정도	67(10.9)	63(24.0)	130(14.8)
	전체	616(70.1)	263(29.9)	879(100.0)
이용시간	오전	72(11.7)	36(13.8)	108(12.3)
	오후	337(54.7)	165(63.5)	502(57.3)
	저녁	25(4.1)	25(9.6)	50(5.7)
	종일	182(29.5)	34(13.1)	216(24.7)
	합계	616(70.3)	260(29.7)	876(100.0)
경로당 이용이유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329(53.3)	128(48.5)	457(51.9)
	건강을 위하여	110(17.8)	41(15.5)	151(17.1)
	화투, 장기, 바둑 등 오락을 위하여	62(10.0)	29(11.0)	91(10.3)
	정보를 얻기 위하여	14(2.3)	30(11.4)	44(5.0)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127(20.6)	26(9.8)	153(17.4)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8(1.3)	8(3.0)	16(1.8)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130(21.1)	47(17.8)	177(20.1)
	기타	7(1.1)	10(3.8)	17(1.9)
	합계	617(70.0)	264(30.0)	881(100.0)
프로그램 참여여부	참여한다	593(96.1)	213(83.9)	806(92.5)
	참여하지 않는다	24(3.9)	41(16.1)	65(7.5)
	전체	617(70.8)	254(29.2)	871(100.0)
프로그램 참여개수	1개	243(29.3)	104(12.5)	347(41.9)
	2~3개	283(46.9)	97(43.1)	380(45.8)
	4~5개	1(2.3)	1(5.3)	2(3.1)
	거의 모든 프로그램	64(10.6)	1(5.3)	7(9.2)
	합계	604(72.9)	225(27.1)	829(100.0)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경우 여성은 프로그램에 참여가 96.1%, 비 참여가 3.9%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참여는 83.9%, 비참여는 16.1%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현저히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기는 하나 프로그램 참여율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참여프로그램 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도 10.6%에 달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와 참여개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경로당 이용특성은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남성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수도 많지만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여성은 높은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는 2-3개 정도 참여에 그치고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경로당 이용시간에 있어서 오후뿐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이용한다는 경우도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3. 경로당 이용만족도

#### 1)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이용만족도

노인의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는 시설만족도에 비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남녀노인 모두 성별에 의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시설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시설만족도에 비해 큰 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남성노인이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남성노인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경로당 참여율도 저하되고, 이는 노인의 노년기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표 7> 성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만족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프로그램 만족	보건의료프로그램	여성	404	3.3	0.9	568	8.958 ***
		남성	166	2.6	1.1		
	건강관련프로그램	여성	514	3.4	0.8	720	7.441 ***
		남성	208	2.9	1.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여성	443	3.4	0.8	619	8.610 ***
		남성	178	2.6	1.2		
	교양교육 프로그램	여성	256	2.7	1.0	387	5.594 ***
		남성	133	2.1	1.0		
	취미관련 프로그램	여성	257	2.8	1.0	289.281	9.250 ***
		남성	124	1.9	0.8		
	봉사활동	여성	238	2.7	0.8	248.935	0.792
		남성	134	2.6	0.9		
	노인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	여성	222	2.5	1.0	343	2.698 ***
		남성	123	2.2	0.9		

\*  $p<0.05$ , \*\*  $p<0.01$ , \*\*\*  $p<0.001$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노인간 프로그램만족도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프로그램, 건강관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교양교육프로그램, 취미관련, 소득연계사업은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차이가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취미관련 프로그램으로 남성의 만족도수준이 1.9로 여성노인의 만족도 2.8과 비교할 때 0.9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낮은 프로그램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노인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이고, 가장 높은 프로그램 만족수준을 보인 것은 건강관련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취미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건강관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만족하는 프로그램과 불만스러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8> 성별 특성에 따른 시설만족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시설 만족 도	주방시설 및 기구	여성	599	3.4	0.8	846	4.234 ***
		남성	249	3.1	0.8		
	화장실	여성	586	3.2	1.0	829	2.825 **
		남성	245	3.0	0.9		
	프로그램 진행실	여성	568	3.1	0.9	790	3.251 ***
		남성	224	2.9	1.0		
	냉난방시설	여성	596	3.3	0.9	846	2.039 *
		남성	252	3.2	0.9		
	도배장판	여성	605	3.3	0.8	476.367	2.117 *
		남성	246	3.1	0.8		
	시설의 안정성	여성	589	3.1	1.0	830	2.120 *
		남성	243	2.9	0.9		
	운동시설	여성	544	2.8	1.1	773	1.354
		남성	231	2.7	1.0		
	남성, 여성이 분리된 휴식시설	여성	586	3.2	1.0	805	2.201 *
		남성	221	3.0	0.9		
	의료시설	여성	507	2.3	1.2	404.183	3.228 ***
		남성	202	2.0	1.1		

\*  $p<0.05$ , \*\*  $p<0.01$ , \*\*\*  $p<0.001$

조사대상자에 따른 성별 경로당 시설만족도는 최고 4와 최저 1을 기준으로 <표 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설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어 남성노인에 비해서 여성노인의 경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만족도에 관한 성별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시설에 대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시설의 경우는 의료시설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차이가 가장 높은 것은 주방시설 및 기구와 의료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는 경로당 시설 가운데 남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성별 차이에 따른 경로당 참여

##### 1) 성별 특성에 따른 경로당 정기참여

<표 9>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남녀 노인의 경로당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배우자 유무, 종교, 동거가족, 건강상태, 수입, 연령과 같은 요인은 남녀 노인 모두 경로당 정기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노인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변인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로당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특성에 따른 경로당 정기적 참여

	여성			남성			전체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성별							-1.559	.000	.210***
배우자	.903	.385	2.468	.048	.955	1.049	.416	.491	1.515
종교	-.089	.890	.915	-1.079	.077	.340	-.549	.200	.578
학력	2.619	.011	13.715**	.290	.602	1.337	1.284	.006	3.612**
동거가족	-1.511	.099	.221	-.700	.479	.496	-.892	.137	.410
건강상태	-.216	.753	.806	.137	.789	1.147	-.064	.870	.938
수입	.572	.123	1.771	-.100	.724	.904	.069	.739	1.072
연령	-.181	.718	.834	.596	.188	1.814	.229	.463	1.257
상수	-.711	.748	.491	1.564	.375	4.778	.891	.487	2.438
Nagelkerke R-제곱.120      .090      .060									

\*  $p<0.05$ , \*\*  $p<0.01$ , \*\*\*  $p<0.001$

<표 10>은 남녀노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로당 참여일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즉 여자노인이 79% 정도 더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투입된 다른 변인들이 같다면 순수하게 성별의 차이로 나타나는 효과는 여자노인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학력과 건강상태, 연령이 경로당 참여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경로당에 참여하는 날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로당 참여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변수로 나타났다. 경로당에 참여하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60대나 70대 초반의 노인의 경우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사회적 정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성별특성에 따른 경로당 정기적 참여일 수

	여성			남성			전체		
	B	유의 확률	Exp(B)	B	유의 확률	Exp(B)	B	유의 확률	Exp(B)
							.948	.000	.387***
배우자	-.649	.276	.522	.174	.808	1.190	-.030	.943	.970
종교	.218	.645	1.243	.066	.876	1.068	.266	.380	1.305
학력	1.115	.178	3.051	.786	.085	2.194	1.182	.002	3.260**
동거가족	.684	.253	1.981	.034	.970	1.034	.481	.322	1.618
건강상태	-.245	.627	.783	-.784	.064	.457	-.671	.033	.511*
수입	-.128	.625	.880	.085	.711	1.089	-.052	.755	.950
연령	1.140	.003	3.125**	1.429	.000	4.175***	1.247	.000	3.481***
상수	.225	.890	1.252	-2.175	.130	.114	-1.308	.184	.270
Nagelkerke R-제곱.123      .207      .187									

\* $p<0.05$ , \*\*  $p<0.01$ , \*\*\*  $p<0.001$

## 2) 성별 만족도에 따른 경로당 참여

<표 7>과 <표 8>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사대상자는 성별에 따라 경로당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의 성별특성이 경로당 정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lt;표 11&gt; 경로당 이용 만족도에 따른 정기적 참여

	여성			남성			전체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772	.014	.462*
경로당시설 만족도	.206	.543	1.229	-.009	.980	.991	.105	.658	1.111
프로그램 만족도	.756	.002	2.131**	.751	.001	2.119***	.875	.000	2.400**
상수	.245	.799	1.278	.095	.926	1.100	-.099	.883	.906
Nagelkerke R-제곱.074 .110 .116									

\*p&lt;0.05 , \*\* p&lt;0.01, \*\*\* p&lt;0.001

우선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성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프로그램 만족도가 경로당의 정기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성은 여정보다는 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경로당 정기적 참여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lt;표 12&gt; 경로당 이용만족도에 따른 경로당 정기적 참여일 수

	여성			남성			전체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841	.000	.431***
경로당시설 만족도	.117	.581	1.124	-.304	.273	.738	-.067	.686	.936
프로그램 만족도	-.252	.212	.777	.643	.000	1.902***	.381	.001	1.463***
상수	2.628	.001	13.849	.317	.697	1.373	.814	.105	2.256
Nagelkerke R-제곱.006 .101 .025									

\*p&lt;0.05 , \*\* p&lt;0.01, \*\*\* p&lt;0.001

<표 12>는 경로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경로당 참여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성의 크기와 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 남성은 경로당 참여일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참여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당시설 만족도는 남

녀노인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특성에 대한 남녀 노 인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남녀 노인이 노년시절을 보다 활기차고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연령이 남성노인의 연령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참여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경로당을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1주일에 3~4회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 참여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당 이용 시간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은 하루 종일 이용하는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오후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용 시간 역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목적에 있어서는 성별 간 격차가 없는 가운데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남녀노 인간 성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시설 만족도에 있어서 운동시설만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가 모두 낮게 나타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보강과 점검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원하는 의료시설로는 혈압 체크기, 간단한 수지침 등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시설 보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봉사활동을 제외한 보건의료, 건강관련, 레크레이션, 교양교육, 취미관련, 노인소득창출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남녀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는 취미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취미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사업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경로당을 여성노인에 비해 적게 이용하는 이유가 남성노인들이 원하는 취미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때문으로, 남성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성별 특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이 경로당의 정기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특성이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는 학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기적 참여일 수에 있어서는 학력과 건강상태,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경로당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경로당 정기적 참여와 정기적 참여일 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만족할수록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제언

지금까지 경로당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이용실태와 만족도, 참여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로당이 수행해 온 중심적인 역할이 사회의 분화에 따른 개인화와 인간의 소외현상을 감안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때 노인간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작업은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의 기능 확대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배치를 통한 노인의 교육과 취미 등 평생교육시설로써 전환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의 협소, 노후화, 운영경비의 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전문가의 미배치,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결여,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노인 여가와 사회활동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외에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운영에 있어 성별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이용시간이나 이용일 수 등 경로당에 대한 참여 또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있어, 노인들을 성 중립적 혹은 몰성적 관점에서 남녀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여건이나 생활상의 차이, 욕구, 만족도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취미활동과 여가, 사회적 관계형성에 경로당의 기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결과에 보듯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경로당 참여가 낮게 나타났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이 경로당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설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만족도가 낮은 의료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운동시설로써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노년시절에 적당한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나 경로당이 협소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미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가 낮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로당에서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자수, 공예, 원예, 서예 등인데 남성노인의 경우는 컴퓨터 활용과 같은 정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여성노인의 소득이 남성노인의 소득에 비해 약 20만원정도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령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높은데 비해 여성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 여성의 빈곤화와 더불어 고령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로당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에 있어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한 중요한 운영기관인 경로당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기반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lt;참고문헌&gt;

- 강홍구. (2000).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8(1): 95-120.
- 김원진. (2006). 장애인노인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4): 97-116.
- 김정현·오현숙·송건섭. (2004). 노인복지 만족요인 분석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3(1): 133-155.
- 김진영·김남진·류상부·강상중·강미영. (2008).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류장학·추수경·반금옥. (2009). 「경로당 여성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간의 관계」. 서울: 한국보건간호학회.
- 문영빈. (2003).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연구 -청주시 노인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2006). 경로당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35: 87-108.
- 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5.
- 박정호·정은하. (2005). 「경로당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요인」. 「노인복지연구」, 27: 175-202.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5).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경로당 기능채신 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엄기욱·박인아. (2005). 경로당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0: 29-51.
- 유영주·김순기. (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 「노인복지연구」, 7(1): 73-95.
- 이광래. (2005). 제주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대학논문집」, 11: 131-143.
- 이상윤·이종수. (2004). 노인교육프로그램 수강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수도권의 노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121-145.
- 이은아·김영혜. (2005).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 수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이인수. (2003). 중소도시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17-130.
- 이재모. (2004). 노인의 경로당 이용 특성과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5: 101-120.
- 이현기. (2008). 노인여가활동의 성별차이와 관련요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65-188.

- 이현기. (2007). 노인여가활동의 연령 차이 연구:연령 집단의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231-255.
- 임춘식. (200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노인복지연구」, 11(1): 29-52.
- 임춘식·김근홍·김문석·이근홍·이인수. (2006).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313-344.
- 정경희·이윤경·이소정·오영희·송창균·방효정·유삼현. (2007).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경옥. (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03-299.
- 조소영. (200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노인복지연구」, 11(1): 53-86.
- 통계청. (2008). 「2008년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성인지예산과정 33기」.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형수.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한혜원. (2008).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형태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3): 47-58.

투고일자 : 2010.02.12

수정완료 : 2010.05.31

개재확정 : 2010.06.09